

퍼스트 스텝스

2011년 가을호 뉴스레터

긴급 구호 요청에 응답한 온정의 손길,
북한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

글: 수잔 리치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6:37 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지난 3 월에 처음으로 긴급 구호 요청을 한 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북한 어린이들에게 대두와 설탕, 식용유, 설비는 물론, 미량영양소 3 백만 포 등 250 톤 이상의 구호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400 여 명의 유아들이 거주하는 원산 육아원(고아원) 지붕이 여름 장마철 시작 전에 수리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콩우유 공장 두 곳의 대규모 개보수 작업도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콩우유 급식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만 명이 늘어나 매일 9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콩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이런 도움이 수만명의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저희 퍼스트 스텝스는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늘 이 사역에 대한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식량 위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 식량위기가 영양결핍에 시달리는 5 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 월, 도널드 태너, 데보라 하든 씨와 제가 24 개 작업장을 방문하여, 대두 120 톤의 입고와 분배를 확인했습니다.

7 월에는 필과 린다 샤프란 부부, 호세 피게로아, 그레이스 로 씨가 26 개 작업장을 방문하여 추가분 대두 120 톤과 영양결핍 아이들을 위한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3 백만 포, 설탕, 식용유, 전압조절기와 콩 분쇄기 등의 입고를 확인했습니다.

두 팀 모두 따뜻한 환대를 받았으며, 이번 소식지를



통해 방문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방문 보고를 후원자 여러분께서 환영하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이 여정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두콩 공급이 시급하다

글: 도널드 태너

흥작기

저는 스위스로 돌아가면서 북한에서 보낸 7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행복한 아이들과 고마워하는 원장님(director)들, 그리고 헌신적인 콩우유 제조 담당 직원들을 만나보았던 것은 신나는 경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식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쌀, 옥수수, 밀 등 주식의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작년 9월, 동해안 부근을 강타한 태풍으로 거의 수확 직전이었던 곡물이 크게 소실되었습니다. 식량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이동하는 곳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더 많은 식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전화 두 통

저는 퍼스트 스텝스를 후원해온 ‘스위스 구호기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아내와 저는 퍼스트 스텝스에서 하는 일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을 준비할 당시에는 더 많은 양의 대두를 지원하기 위한 퍼스트 스텝스의 긴급 지원 요청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점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일상의 필요에 대해 쉽게 잊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작년 11월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북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4개월후에 놀랍게도 같은 목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은행계좌 정보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그분들은 캐나다 달러로 6만 5천 달러를 모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스위스의 크리스천들을 참여시키시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분들은 너그럽게 베푸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대두 공급 부족

방문 기간에 우리는 대두 창고를 여럿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 상당수가 이미 3월에 텅 비었다고 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에서는 우리가 보낸 기금으로 대두 120톤을 구입하여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60톤은 북한 서부로, 나머지 60톤은 동부로 보냈습니다. 대두가 쌓여 있는 창고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저는 차곡차곡 쌓여 있는 대두 포대를 몇 번이고 세어 봤습니다. “이 정도 콩이면 오래 갈 테니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8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대두의 양은 2000kg이 넘습니다. 2010년, 대두 부족으로 인해 퍼스트 스텝스 역사 이래 처음으로 콩우유 제조기 일부가 콩우유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수잔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 2개월 후면 이 120톤이 소진될텐데, 이후 콩우유의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 질지 걱정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

저는 엔지니어이다 보니 기술적인 문제로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설 새 없이 작동하다 보니 바이타카우(대두를 콩우유로 만드는 제조기) 몇 대에 무리가 간 것이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일부는 하루 8시간, 또 일부는 16시간씩 가동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부품이 있다면 일부는 부품 교체를 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 제조한 바이타카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기계 자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직원들이 해결해야 할 전원 공급의 문제도 만성적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기술적인 문제를 매우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

제 생각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최대의 과제는 원료, 즉 귀중한 대두의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대두가 없다면 아이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이 전혀 없게 됩니다. 대두는 이웃에게 빌릴 수도 없고, 수입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기부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캐나다 달러 10달러면 10월 추수기까지 어린이 5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아이들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글: 그레이스 로

우리가 탄 비행기가 평양에 착륙하자 햇살이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기대와 호기심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대두 공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두 공장 관리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 윤리가 철저했습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기쁨을 보고 저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퍼스트 스텝스의 노고로 많은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와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나라는 다르지만 퍼스트 스텝스는 주린 이를 먹이시던 예수님의 손길로 행동하는 빛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 작은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제 사진과 함께 북한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퍼스트 스텝스에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주민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잊을 수 없는 작은 미소

글: 린다 샤프란

이번이 제게는 두 번째 북한 방문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 필과 저는 역할을 바꿔 필이 퍼스트 스텝스에서 보낸 첫번째 배송분의 감시와 확인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26곳의 시설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관리자들과 만났고 필이 필요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기록했으며, 우리 팀의 다른 방문자 두 분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약품, 비타민과 손뜨개 목도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퍼스트 스텝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변화 추이를 지켜봐 온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유치원 중 한 곳에서는 5세 어린이들에게 곰돌이 젤리를 선물했는데, 아이들은 이 신기한 물건을 받고 신이 났습니다.

진료소도 몇 곳 방문했는데 미량영양제 스프링클스를 섭취하고 건강이 좋아진 임산부와 아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최초의 스프링클스에는 4개의 미량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었던데 비해, 현재는 14개의 미량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아원 중 한 곳에서는 거의 잠이 든, 허약해 보이는 아기를 바라보며 자그만 손도 잡아보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도 했습니다. 몇 분 뒤, 그 아기가 마침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저는 아기의 작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저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억을 떠올릴 때 아기와 보낸 이 순간도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의 방문 동안 각기 다른 경험을 했지만 두 가지 추억이 모여 퍼스트 스텝스가 돕고자 하는 곳의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소리로도 북한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새로이 이해하다

글: 호세 피게로아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보게되고, 또한 사진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로 저는 주님께 북한 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6월말, 저는 북한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잔 리치 씨와 연락이 닿았고, 수잔은 실사팀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니다. 퍼스트 스텝스에서 영양가 있는 콩우유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이 사역의 엄청난 규모는 하나님께서 진정 필요를 채워주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과 감사를 안고 7월 19일에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되고, 직접 보고

주님이 앞으로도 퍼스트 스텝스를 크게 쓰시고 주님의 계획이 약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